

2020 주일메세지

교회!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사람들을 구조한 작은 구명보트

1.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답은 예수님에게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명확해진다.

[에베소서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다. 구원이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가 노아의 방주이다. 방주를 지으신 목적은 물 홍수의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동물 암수 각 한 쌍을 구조하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하다. 유람선이 아니다. 방주는 분명히 구조선이다.

2. 성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성도는 누구인가? 구조원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배에 태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4: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3. 진짜 교회. 아버지의 집

[요한복음 14:1-3]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3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1) 근심 - 38년 된 병자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이다. 계속 문제 가운데 있는 상태이다. '근심하지'로 번역된 '타랏소'의 의미는 물이 '동요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대한 예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못의 사건이다.

[요한복음 5:4, 7]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낮게 됴이리라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 그의 소망은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게 된다는 전승을 믿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대답한다. 베데스다 못 앞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헛된 소망이 ‘근심’이다. ‘타랏소’는 물이 움직인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동요된 상태를 말한다. 못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동요되었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근심’이다.

사람의 인생이 ‘근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문제 투성이의 인생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와 같다.

(2) 두려움에 있을 제자

‘타랏소’ - 근심의 다른 의미는 ‘두려움’이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은 ‘자아’를 말한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자아는 동요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세상의 파도 앞에서 그들의 자아는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풍랑 속의 제자들의 사건과 같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존재에 대한 ‘부재감’이 바로 ‘두려움’이다.

(3) 믿음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있는 예수님의 실존 상태는 ‘두려움과 근심’이 제거된 ‘평화’의 상태를 말한다. 샬롬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존재감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4) 집 - 교회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하다.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2-3]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과 두려움에 있을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집’을 언급하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이 말씀이 놀랍다. 아버지는 존재의 근원이다.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자녀를 안으신다. 보호하신다. 먹이신다. 아버지 집에 거할 조건은 ‘아들’이라는 신분 하나이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아야 한다.

그 아버지 집은 오직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존재한다. 자녀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고, 그분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다. 근심있는 인생을 향한 ‘거처’가 아버지 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탕자’ 비유에 나타난다.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한 탕자, 내버려 두면 이제 죽음뿐인 탕자가 돌아갈 곳이 있었다. ‘아버지의 집’이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 탕자의 인생에 실재적 회복이 일어난다. 구원은 탕자가 경험한 실재의 회복이다.

[누가복음 15:22-24]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잔치를 베푸신다. 그 이유는 24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는 구원은 바로 24절의 아버지 고백이다.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의 회복이 일어난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다. 우리 예수님이 근심있는 인생을 향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 거처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탕자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집의 역할을 할 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4. 타이타닉호, 그리고 교회

(1) 난민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난민'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청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난민의 대부분이 '경제'난민이다. 난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난민은 거처가 없는 자들을 말한다. 전쟁으로 나라를 잃고 경제로 나라와 가정을 잃은 사람들, 즉 거처를 잃은 사람들이 증가한다.

마지막 때의 기록처럼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고아와 과부, 즉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증가한다. 성경은 마지막 때 난민의 증가를 기록한다.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이 가득한 인생이 난민이다. 돌보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인생이 난민이다.

(2) 작은 구명보트 - 교회

타이타닉호 영화를 보면 거대한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갑자기 침몰한다.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입증된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에 빠졌다. 죽음이 그들 앞에 있었다. 영화 타이타닉호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다. 작은 구명보트가 작은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며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 내었다.

지금 바로 그와 같은 때이다. 교회는 이 작은 구명보트가 되어야 한다. 이제 교회는 타이타닉호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내려놓아야 한다. 타이타닉호는 먹고 즐기는 유람선이다. 교회는 작은 구명보트가 되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내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타이타닉호와 같은 큰 성전이 아니라 작은 구명보트이셨다. 그리고 다니시는 곳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 내셨다.

이제 아버지 집과 같은 작은 구명보트가 되어 사람들을 건져내자. 작은 구명보트, 조이풀.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주일은 행사가 아닌 작은 구명보트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다시 살게 하는 작은 보트의 축제임을 명확히 하자.